



## 먼저 간 단풍나무 붉게 익은 감이 대신하네

### 가을에 와야 할 秋 감사

도량은 가을이 깊게 배어있다. 산문 밖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가을이다. 돌담 밑에 모여 있는 마른 잎들, 꽃이 떠난 대적전 백일홍,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들, 도량 곳곳에 매달린 붉은 감들. 차가워진 오솔길, 외롭게 서있는 당간지주, 잎을 만하면 불어대는 가을바람 소리는 없던 '생각'도 일게 한다. 가을에 와야 할 감사다.

몇 해 전 여름에 왔을 때 보았던 팔상전 단풍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그 뒤편 푸른 잎이어서 가을에 다시 오게 되면 붉은 모습을 찍어갈 생각이었는데, 돌담 위로 보여야 할 단풍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그루터기만 남아 있다. 멀리 법당 어간에 서있던 다람쥐 한 마리가 내게 눈을 맞추고, 그루터기 위로는 낙엽이 떨어져 않는다.

다람쥐를 따라 팔상전 마당을 나선다. 스님도 어디인가 바빠 간다. 꽃길을 돌아 선원으로, 선원을 나와 다시 꽃길로, 돌문을 지나 대적전으로, 대적전에서 다시 진해당으로 간다. 팔상전 단풍나무를 묻고 싶었는데 묻지 않기로 했다.

해가 많이 짧아진 것 같다. 도량엔 순식간에 저녁이 들어차고, 들어찬 저녁은 산문을 닫기 시작한다. 돌담 밑의 마른 잎들, 대적전 배롱나무, 붉어지기 시작한 단풍나무, 벌치럼 매달린 감들, 어두워진 오솔길, 외로워 보이는 당간지주, 다시 불어오는 가을바람. 그리고 불 수 없었던 팔상전 단풍나무. 가을에 와야 할 감사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감사는... 계룡사·계룡감사·감사(甲寺)·감사사(甲土寺)라고도 한다. 420년(백제 구이신왕 1) 고구려에서 온 아도 스님이 창건했다. 505년(무령왕 5) 천불전을 중창하고 556년(위덕왕 3) 해명 스님이 천불전·보광명전·대광명전을 중건했다. 679년(문무왕 19) 의상 스님이 당우 1,000여 칸을 더 지어 화엄도량으로 삼아 신라 화엄십찰(十刹)의 하나가 됐고, 옛 이름인 계룡감사를 감사로 바꿨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도량이 모두 소실되어 1654년(효종 5) 사정·신취 스님 등이 중창했다. 1875년(고종 12) 다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전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 (소) 3.5 x 5cm (중) 5 x 7cm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식사천  
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 x 10mm x 12mm 55,000원  
10mm x 10mm x 12mm 65,000원  
12mm x 10mm x 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기력이 저하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항로  
(세) 26 x 16 x 16cm 155,000원  
→ 원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  
과 복판을 이음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  
이 뿜어져 나와 예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답으며 동남  
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격의심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시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격의심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마다 작용  
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  
걸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오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형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많은 스님, 불자들이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돌기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발생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험인증  
신약형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  
를 건강하게 하리만 편안하게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담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담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  
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많기 때문에 가족 및 주  
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  
돌 온열복대는 속담(최고60°C)보다 높은 고열(80°C이상)의 원격의심 "열  
침"이 백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  
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걸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